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설날 되도록

우리의 설 명절이 다가오며 전국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제는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인식하고 참되게 예배함으로 우리 가정들도 영적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과

거 우리 선배 성도들이 국가적 위기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이번 설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본지 5면에 설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설날 가족예배의 모범을 게재하였습니다.

2025년 신앙 강좌부 개강



강사 : 양정호 협동목사

1. 개강 : 2월 2일(주일)
2. 시간 : 매주 주일 12:15-12:50
(2월 2일-12월 14일)
3. 장소 : 602호실
4. 담당 : 양정호 협동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교회사/역사신학 전공)
5. 주제 : 중세 교회사
6. 신청 : 구성현 안수집사
(신앙강좌부 부장, 010-8080-6113)

2025 겨울성경학교·수련회

부서	주제	주제말씀	일정	장소
유아부	성령님과 뽀뽀! 자라는 나!	갈 5:22-23	2월 15(토)-16(주일)	서울교회
유치부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잠 3:5	2월 15(토)-16(주일)	서울교회
유년부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잠 3:5	2월 21일(금)-22일(토)	서울교회
초등부	신나는 성경탐험(구약)	수 1:8	2월 21일(금)-22일(토)	서울교회
중등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 45:7	2월 14일(금)-15일(토) 16(주일)	아가페타운 서울교회
고등부	아빠 아버지	갈 4: 6-7	2월 14일(금)-15일(토)	아가페타운
청년부	주님 품에 안겨	사 41:10	2월 6일(목)-8일(토)	캠프 코리아(시흥)
사랑부	우리는 세상의 빛	마 5:14-16	2월 22일(토)-23일(주일)	서울교회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김정훈·김희정(1) 임선철·이영주(0.5) 남영주(0.5) 사라전도회(0.5) 이동귀(0.5) 김성주·한주희(1) 박광훈·이진순(0.5) 정준혜(0.5) 박찬희(1) 이재숙(2.0) 흥한규(0.5) 장창수·박혜정(0.5) 오윤걸(1) 안인호·이명신(1) 유형석·제오복(1)

Vision2030운동 후원자

사라전도회(5) 김경숙(1) 김성주·한주희(1) 김정훈·김희정(1) 남영주(2) 박광훈·이진순(1) 박찬희(1) 송인권(1) 송정운(1) 오윤걸(1) 유미영(1) 유형석·제오복(2) 이동귀(1) 임선철·이영주(2) 장창수·박혜정(2) 정복순(1) 정준혜(2) 진영민(1) 진영호(1) 진찬옥(1) 흥한규(2)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유형석·제오복(1) 흥한규(0.5) 장창수·박혜정(0.5) 송인권(0.5) 오윤걸(1) 안인호·이명신(1) 김정훈·김희정(1) 임만석·임만용(0.5) 남영주(0.5) 사라전도회(0.5) 이동귀(1) 김성주·한주희(1) 이경화(0.5) 박광훈·이진순(0.5) 김형상(1) 윤용선(0.5) 김대훈·유보영(0.5) 박찬희(1) 한시온(2)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 *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 * 장학헌금 계좌 : 신한은행
100-037-522042
대한예장 서울교회 손달익

고령 성도 및 장기 결석 환자 성도 심방



김복녀 은퇴권사 심방

지난주에도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고령의 성도들과 장기 결석 중인 환자 심방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는 김복녀 은퇴권사, 전희정 은퇴권사, 강대철 성도 심방이 있었습니다.

심방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교구 담당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은퇴권사 심방



강대철 성도 심방

환난을 이기고

살전 1:2-10



손달익 위임목사

지난 2천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나 박해의 역사는 있었고, 시대와 지역을 달리 하여 순교자들의 역사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그 역사들은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대륙을 뛰어넘어 유럽을 향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은 데살로니가라는 생소한 지역의 낯선 환경에 적잖게 당황했고 전

도자들을 지켜본 현지의 주민들도 너무나 이질적인 종교 문화를 만나면서 거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화는 이루어졌고 새로운 문명이 꽃피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그들의 존재 자체로 반대에 직면했고 가진 바 모든 내용이 수용될 수 없는 이단적인 내용으로 취급되었습니다.(고전 4:11-13) 아무런 법적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었던 1세기의 전도자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죽음 앞에 노출된 모습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지역에서 순교자들의 역사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1. 박해에 직면한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전도를 통해 그곳에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설립한 바울 일행은 인근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지원으로 계획적으로 건설된 신도시였고 로마 정부의 주관으로 많은 로마의 신전들이 건립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9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도자들을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고발하기도 했습니다.(행 17:5-6) 이런 소동과 박해의 과정을 극복하고 나서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박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도자들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큼 수가 많거나 대단한 조직력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기껏 4-5명이 일행이 되어 전도하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과 4-5명의 활동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인들이 받은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박해는 역설적으로 당시 비록 소수의 무리가 움직였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박해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두렵지 않으면 그렇게 거짓 말을 하고 모함을 해서라도 전도자들을 몰아내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박해를 극복하고 도시 역사를 새롭게 했고 이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2. 박해를 이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박해는 두 갈래로 찾아왔습니다. 한 갈래는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한 갈래는 관료들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3주간에 걸쳐 전도했고 이어 거친 박해에 직면했는데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박해가 매우 극렬하여 견디지 못한 바울 일행은 밤중에 성도들의 도움으로 데살로니가를 탈출하여 베뢰아로 갔는데 그들은 베뢰아까지 쫓아가서 전도자들을 괴롭히고 군중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뢰아를 떠난 후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당했을 시련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겨우 3주간 말씀을 배웠을 뿐인데 그 연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이 극성스러운 박해자들을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래

서 아테네에 도착하여 사역하면서 디모데를 비밀리에 데살로니가로 파송했습니다. 교회는 존속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살아남았는지, 모든 것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돌아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살전 3:6). 박해를 이겨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미 각처에 퍼져있다는 것입니다.(7절)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박해와 반대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했던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벧전 4:12-13)고 가르쳤습니다. 역사 속의 순교자들은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극렬하게 저주하거나 성토했지 않습니다. 믿음 따라 살다가 예수 이름을 위해 생명 바치는 것을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겨 감사하고 기뻐했을 뿐입니다.

3. 소망을 견고하게 붙드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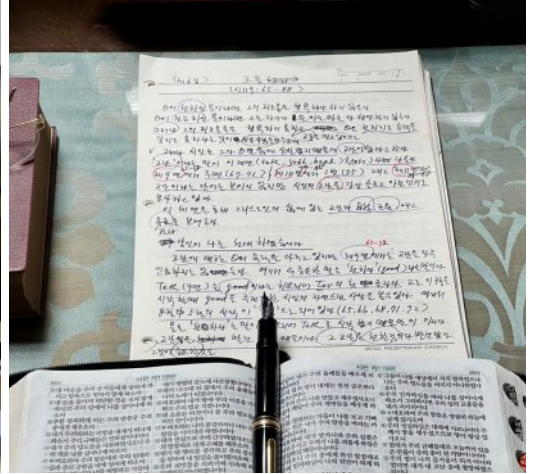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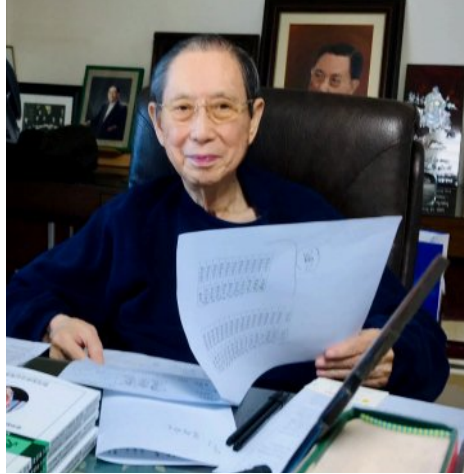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기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10절).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교회가 간직하고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지니고 있다',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와 주를 본 받았다'라는 말씀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콘텐츠들이 매우 훌륭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바람직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중의 한 가지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이를 일컬어 종말론적 신앙이라 부릅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정상적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살이의 화려함과 길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 신앙을 가졌고 현실 초월의 신앙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숙해갔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정상적이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살이의 화려함과 길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목사님,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이 그림습니다



생전 마지막까지도 연구에 힘쓰셨던 고 이종윤 원로목사님

위대한 목회자요, 한국교회 10대 설교가요, 총장과 교수요, 탁월한 신학자요,
각종 신학회와 연합기구를 섬기셨던
원로목사님 같은 영적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들이
다시, 이 땅에 속히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요, 참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믿음의 큰 스승이셨던 원로목사님 2주기를 맞아 목사님을 무척 사랑하던 성도들이 목사님을 다시 기억하며 그 육신이 안장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돌아봅니다.

이전 섬기던 교회에서의 거짓과 불법에도 털 깎는 자 앞의 잠잠한 양처럼 아무 입도 열지 아니한 채 홀연히 떠났던 미국 길에서, 목자 잃은 양처럼 버려진 성도들의 울부짖는 호소를 외면하지 못해 겐그레아에서의 바울처럼 삭발의 모습으로 돌아와 서울교회 설립을 이끌어 주시고, 어려운 교회재정으로 제대로 된 사례조차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가진 것까지 사랑하는 서울교회 건축을 위해 모두 드리셨으며, 집 한 채도 없이 은퇴하시는 모습에 교회가 마련하여 드리려던 사택마저 현금으로 내 집을 가질 수는 없다며 훌훌 빈 손으로 떠나셨던 목사님,

20여 년간, 전심을 다하여 섬기던 서울교회를 은퇴하시면서 행여라도 후임목사에 조그만 짐이라도 될까 봐 오직 하나님께만 교회를 맡기신다며 흔적도 없이 떠나 더 이상 서울교회에 발걸조차 하지 않으셨던 목사님, 은퇴하신 후 자주 모시지도, 찾아뵙지도 못하는 무관심에 많은 섭섭함이 있었을 텐데도 교회의 긴박한 호소에 불편한 몸으로 기꺼이 돌아와 말씀으로 낙심 중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둠 속의 교회의 갈 길을 밝히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 그 때문에 보지 않아도 될 거짓과 손가락질, 겪지 않아도 될 모욕과 배신에 육신의 건강까지 약해져 아직도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

교회에도 남은 사역이 많으신 연세에 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목사님,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과 목사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고 그 울골은 신앙과 청빈한 삶의 모습, 그런 존경스런 목사님과 함께 서울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원로목사님이 떠나신 지금 이 나라는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온 국민이 불안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나라를 이끌어가는 각계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에 따라 역사 앞에서 오직 지혜와 공정함으로 이 나라의 국민과 미래를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원로목사님이 목청 높여 외치셨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고,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건강한 진보의 당위가 질서 있게 펼쳐지게 하시며, 하루속히 온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이전 평안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서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더 큰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국가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작금의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심히 부끄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럴 때일수록 위대한 목회자요, 한국교회 10대 설교가요, 총장과 교수요, 탁월한 신학자요, 각종 신학회와 연합기구를 섬겼던 원로목사님 같은 영적 비전과 리더

십을 갖춘 지도자들이 다시, 이 땅에 속히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울교회가 분쟁 후 어수선했던 때 손달익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법적으로, 목회적으로 속히 안정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서울교회는 다시 또 새 담임목사님을 모셔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원로목사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내고, 경건과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하실 목사님, 그리하여 저희 모두에게 깊은 삶과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정말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만한 목사님을 다시 서울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서울교회가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한 시대에 더욱 귀하게 부족함이 없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세워주신 손달익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이 예배에 동참한 저희로 하여금 이 구원의 마지막 때, 오직 남은 자로, 원로목사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추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외롭게 남겨두신 연로하신 사모님을 비롯 남겨진 자녀 손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영원한 생명의 주요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상헌 은퇴장로

故 이종운 원로목사 2주기 추모예배



신앙강좌반 개강에 초대합니다

중세교회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신앙의 지혜



구성현 안수집사
(신앙강좌부 부장)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길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양정호 협동목사(장신대 교수, 역사신학 전공)님이 강의하시는 2025년도 신앙강좌부에서는 여러분을 중세교회의 깊은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중세교회는 약 1,000년에 걸친 신앙의 역사로, 교회의 영광과 시련이 교차했던 시기이며,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과 깊은 신앙적 유산을 남긴 시기로, 이 시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약 500년부터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가 지중해 지역에서 기타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 질서가 확립이 되었는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기독교 세계가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어떻게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배우고, 중세 기독교 사상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 봄으로써 중세교회와 사회의 모습을 정리해 보는 수업입니다.

수업에 앞서 중세교회사에서 다룰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면,

첫째, '교황권의 부상과 서임권 투쟁'입니다

중세 초기에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유럽의 정치와 종교를 주도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황과 세속 군주들 간의 서임권(주교나 성직자를 임명할 권리)을 두고 벌어진 갈등으로, 교황과 군주의 권력 관계를 이해하며, 교회와 국가의 상호 작용이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원 운동과 클뤼니 개혁'입니다

중세 초기 타락한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원에서 시작된 클뤼니 개혁은 교회 개혁과 영적 갱신 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수도원 운동은 경건 생활과 신앙의 깊이를 강조하며, 중세 신학과 신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말부터 약 200년간 이어진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벌인 군사적 종교 운동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중세교회의 정치적, 종교적 관계 및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스콜라 철학과 신학 발전'입니다

중세 대학과 스콜라 철학의 발전은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고자 한 노력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같은 중요한 신학적 저작이 탄생했습니다.

신학적 사고의 체계 정립과 신학 연구의 기초에 미친 스콜라 철학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전초 : 중세 말 교회의 위기'입니다

중세 말기 교회의 부패, 면죄부 판매, 아비뇽 유수(교황권 분열) 등은 중세교회의 쇠퇴를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16세기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세 말기의 위기를 통해 교회의 타락과 개혁의 필요성을 배우며, 종교개혁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교회의 중심 역할과 서구 사회의 형성', '십자군 전쟁과 수도원 운동이 남긴 신앙의 유산', '스콜라 철학의 신학적 통찰과 오늘날 신앙에 주는 교훈', '교회의 부패와 개혁의 움직임에서 배우는 우리의 사명' 등과 같은 귀중한 배움을 얻을 것입니다.

중세교회사 강의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닌, 우리 신앙의 뿌리를 탐구하고 삶에 적용할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배우고, 오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이 귀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교회 주일 성인 성도 대상 유일한 양육 교육 프로그램인 신앙강좌부에 오셔서 함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카톡 단독방에 초대되어 매 주 강의자료를 pdf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연락처 : 신앙강좌부 구성현 안수집사, 010-8080-6113)

설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온 가족이 모처럼 한 자리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설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 모범을 제시합니다.

예배 순서

목도	인도 : 가족 중 어른
성서	시편 100편 1-3절	다 함께
찬송	430장	인도자
기도	다 함께
성경봉독	시 127:1	가족 중(다함께)
메시지	"복된 가정을 세우는 비결"	인도자
찬송	488장	인도자
주기도	다 함께

성경 : 시편127: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복된 가정을 세우는 비결"

새해는 새로운 소망과 계획을 품고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결심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가정

오늘 본문은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모임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공동체입니다. 마 6:24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인 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좋은 가정을 만드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빌 4:6-7 말씀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곳을 넘어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엡 4:2의 말씀입니다. "모든 겹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수가 있고 갈등이 생기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명절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평소 함께 지내던 가족에게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비록 작아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은 평안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우리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 : 2월 7일(금)까지 /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 오윤걸 장로)는 2025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생은 신앙생활에 모범적이며 교회봉사와 청년부에 출석 중인 대학생으로 봉사부서와 청년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를 2월 7일(금)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부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2월 23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합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558-1106 (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헌 구민우 허정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성도 동정



- 개원 : 4교구 김동환 안수집사
참종은 내과 개원 (내과 진료 및 건강검진 전문)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72번길 18, 4층
tel : 031-626-7777

식사 제공

- 4교구 김동환 안수집사 · 정지은 집사 가정 (병원 개원을 감사드리며)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함

상담이 필요하세요?

서울교회 상담부에 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문자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 상담분야 : 법률, 세무, 교육, 가정
- 연락처 : 010-2376-3892번으로
- 문자 양식 : 교구, 성명, 상담분야

배식 봉사

이번 주 : 사라전도회
다음 주 : 한나전도회

설거지 봉사

이번 주 : 스테반회 봉사부
다음 주 : 엘리야선교회

2025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1월26일	주일	출 33-35
1월27일	월	출 36-38
1월28일	화	출 39-40
1월29일	수	레 1-4
1월30일	목	레 5-7
1월31일	금	레 8-10
2월1일	토	레 11-14

이름:

맥체인 성경통독			
창27	마26	에3	행26
창28	마27	에4	행27
창29	마28	에5	행28
창30	막1	에6	롬1
창31	막2	에7	롬2
창32	막3	에8	롬3
창33	막4	에9-10	롬4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 안에서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믿음의 계대를 이루는 가정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2. 한가정한선교사-농어촌100교회·Vision2030 후원 운동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3. 이 나라에 평안과 회복을 주시고,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며 분쟁과 전쟁의 고통이 그치고 평화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김익환 최중국 황하은

◇ 교육목사

손주찬

◇ 준전임전도사

성선혜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조하영 안반석

◇ 협동목사

양정호

◇ 호산나대학 교목

장석남

◇ 사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홍기

서은석 노제현 김광태 김예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임우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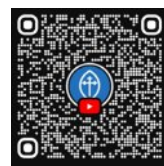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0시 30분 - 12시	601호
중등부	오전 10시 30분 - 12시	501호
고등부	오전 10시 30분 - 12시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7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